

국내 장애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 필요 사유에 따른 작업영역별 시간사용 분석 : 2019년 생활시간조사 중심으로

홍서진¹, 차태현², 유영빈^{3*}

¹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²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³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병리학과 교수

Analysis of time use by occupation domai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are need reasons of the Korean elderly with disabilities : Focused on the 2019 Time Use Survey

Seojin Hong¹, Tae-Hyun Cha², Young-Bin Yu^{3*}

¹Master's Cours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Konyang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Medical Sciences, Konyang University

³Professor, Dep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College of Medical Sciences,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를 작업치료 실행체계(OTPF-4)의 작업영역에 따라 재분류한 후, 국내 장애노인 842명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 필요 사유에 따라 작업영역별 시간사용을 살펴보고자 독립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장애노인은 휴식과 수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P<.001$), 여가($P<.001$), 사회참여($P<.001$), 혼인상태에 따라 일상생활활동(ADL)($P<.01$), IADL($P<.001$), 놀이($P<.05$), 여가($P<.001$), 교육정도에 따라 ADL($P<.05$), 교육($P<.001$), 사회참여($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돌봄 필요 사유에 따라 ADL($P<.01$), IADL($P<.001$), 휴식과 수면($P<.01$), 여가($P<.001$), 사회참여($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장애노인의 작업영역별 시간사용을 파악하였기에 장애노인의 균형적, 효율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중재를 계획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 장애노인, 시간사용, 시간사용중재, 작업, 작업치료

Abstract In this study, after reclassifying the behavioral classification of '2019 Time Use Survey' according to occupation domain of OTPF-4. Time use of occupation domain was examine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are need reasons were performed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As a result, according to gender, IADL($P<.001$), Leisure($P<.001$), Social participation($P<.001$) and according to marital status, ADL($P<.01$), IADL($P<.001$), Play($P<.05$), Leisure($P<.001$) and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ADL($P<.05$), Education($P<.001$), Social participation($P<.01$)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care need reasons, ADL($P<.01$), IADL($P<.001$), Rest and Sleep($P<.01$), Leisure($P<.001$), Social participation($P<.001$) showed difference. This study will be used to identify time use by occupation domain and to plan interventions for a balanced and efficient lifestyle of korean disabled elderly.

Key Words : Disabled Elderly, Time Use, Time Use Intervention, Occupation, Occupational Therapy

*Corresponding Author : Young-Bin Yu(ybyoo@konyang.ac.kr)

Received October 1,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Revised November 10, 2021

Published December 28, 2021

1. 서론

우리나라 2020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이며, 고령인구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20.3%를 차지하며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1]. 2020년 장애 인구의 49.9%가 65세 이상 인구로 2017년 대비 3.3%나 증가하여 장애 인구에서도 고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이러한 경향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화된 장애인이나 노인성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겨 돌봄이 필요한 장애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3-5].

작업(Occupation)이란 매시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미 있고 목적 있는 활동을 말한다[6]. 작업치료 실행체계 4판(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Fourth Edition; OTPF-4)에 따르면, 광범위한 작업을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 휴식과 수면(Rest and sleep), 교육(Education), 일(Work), 놀이(Play), 여가(Leisure),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8가지로 나누고, 이를 작업영역(Occupation domain)이라 한다[7]. 개인에게 작업은 일상 그 자체를 말하며, 매시간 작업에 참여하고 있기에 작업과 시간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8].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여 사용하는 것은 삶의 만족과 관련되어 중요하며[8], 생활의 각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작업균형이라 한다[9]. 특히, 노인인 삶의 만족도와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자기관리, 휴식, 사회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균형있게 참여해야 한다 [10]. 하지만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기능이 감소되어 작업 박탈을 경험하기 쉬운 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하나의 작업 유형으로 고정될 수 있다[11]. 게다가, 장애인이라면 균형적인 작업에 참여할 기회와 요건이 매우 부족할 것이다[12].

이 때, 작업치료사는 작업영역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시간 사용 방법을 적절하게 조절해주어 라이프스타일을 재설계하도록 제공하고,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13,14]. 또한, 작업치료사는 균형있는 작업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의 역할에 따라 작업영역별 시간 사용을 파악한다. 더불어 대상자의 배경을 이해하고, 변화된 작업영역에 대해 감지하여 중재 목표와 방향성을 정한다

[8,15,16].

급속한 고령화로 작업치료의 대상자 중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17], 노인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생활시간사용 패턴의 분석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18].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과 만족감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하루 동안의 시간사용을 파악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한다[19,20]. 뿐만 아니라 작업치료사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관리를 위해 작업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해 시간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21].

국내 작업치료 분야에서 노인의 시간사용을 알아본 연구로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2,23]가 대부분이다. 시간사용중재를 제공한 연구로는 치매[24]나 뇌졸중[25-27]과 같이 단일 질환의 대상자에게 중재를 제공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성별과 질환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인들의 시간 사용이 분석된다면, 노인들이 의미 있는 작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재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6].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일지를 활용하여 행동분류를 작업치료 실행체계(OTPF-4)에서 제시한 8가지 작업영역으로 재분류하여 국내 장애인노인의 시간사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일반적 특성과 돌봄 필요 사유에 따라 작업영역별 시간 사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장애인노인의 효율적인 시간사용을 위한 작업치료 중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9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하여 국내 장애인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 필요 사유에 따라 작업영역별 시간사용에 대해 살펴본 2차자료분석 연구이다. K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KYU 2021-08-006)을 받아 진행하였다.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조사' 시간일지의 행동분류를 작업치료 실행체계(OTPF-4)의 작업영역으로 재분류하고, 국내 장애인노인의 작업영역별 시간사용을 알아보았다. 그 후 일반적 특성과 돌봄 필요 사유별 작업영역 시간사용을 알아보았다. 돌봄 필요 사유별 작업영역 시간사용의 차이가 발견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Table 1. Reclassification of Behavioral Classifications in 2019 Time Use Survey according to Occupation domain

Occupation domain	Behavioral Classifications in 2019 Time Use Survey
ADL	Eating and snacking, Personal hygiene and appearance management
IADL	Food preparation, Clothing management, Cleaning and organizing, Housing and household goods management, Purchasing goods and services, Caring for pets and plants, Vehicle care and maintenance, Other household management, Caring for children under 10 years old, Caring for minors over 10 years old, Long term Caring for needy adults, Independent adult care, Religious activities, Driving and community mobility
Rest and Sleep	Sleep, Rest-related behavior
Education	School activities, Non-school activities of learning
Work	Unincorporated household work, Unpaid family work, Other work-related activities, Job search and start-up activities, Work for self-consumption, Non-organizational volunteering, Organizational and community-based volunteering, Unpaid training and related activities
Play	Game and play
Leisure	Cultural and tourism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using media, Sports and leisure activities, Other leisure activities
Social participation	Fellowship activity, Participation activity, Ceremonial activity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2.2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8].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에서 5년주기로 실시하는 조사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24시간 동안 시간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양식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어졌다. 조사 결과는 삶의 질, 복지, 문화 등 정책 수립과 학문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진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는 전국의 만 10세 이상 약 5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으로는 가구관련사항(12개 항목), 개인관련사항(14개 항목), 시간일지로 이루어졌다. 가구관련 항목, 개인관련 항목은 조사원의 면접조사로 진행되며 시간일지는 자기기입식 조사로 10분 간격으로 응답자가 시간일지에 자신이 한 행동을 2일 동안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 중 가구관련사항(성별, 혼인상태, 돌봄 필요 사유)과 개인관련사항(교육정도), 주된 행동의 시간 사용량, 시간사용에 따른 행동분류를 사용하였다.

2.2.1 ‘2019년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일지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조사’ 원

자료 중 시간일지를 사용하였다. 시간일지는 개인의 일상생활 시간사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48시간 동안 응답자가 10분 간격으로 누구랑, 어떠한 행동을, 어느만큼, 어떻게 사용했는지 행동 분류표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한다. 행동분류표는 9개 대분류, 45개 중분류, 153개 소분류로 구분되어진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맞추어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표를 바탕으로 Hong & Lee의 연구[29]를 참고하여 OTPF-4에 따라 Table 1과 같이 8가지의 작업영역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2.3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설정하기 위해 ‘2019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842명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돌봄 필요 사유로는 치매, 뇌졸중, 시각청각언어장애, 걷기 등의 육체적 제약, 기타 돌봄 필요로 나누어진다. ‘2019 생활시간조사’의 가구관련사항 중 돌봄 필요 사유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제약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가구원이 사유를 선택하여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계청의 2019 생활시간조사 지침서[30]에 따른 돌봄 필요 사유에 대한 정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finition of Care Needs Reason in the 2019 Time Use Survey

Reasons for care	Definition
Dementia	Cognitive functions in various areas, such as memory, language, and judgment, are impaired, making it difficult to perform daily activities properly.
Stroke	Paralysis, speech disorders, etc., due to brain hemorrhage or others, the body cannot move freely, Unable to perform daily life properly.
VisualHearingSpeech disorder	In case of limitations in daily life or social life due to a disability or defect in vision, hearing, language or speech(Excluding people with dementia or stroke).
Restrictions of physical	Restricted in physical activity to physical discomfort caused by disc, degenerative arthritis, disease, or old age, etc. in daily life.
Others	In case, Care is needed for daily life other than dementia, stroke and Visual, Hearing, Speech disorder, Restrictions of physical.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N=842)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284 (33.7%)
	Female	558 (66.3%)
Reasons for care	Dementia	118 (14.0%)
	Stroke	76 (9.0%)
	VisualHearingSpeech disorder	48 (5.7%)
	Restrictions of physical	328 (39.0%)
	Others	272 (32.3%)
Marital status	Single	10 (1.2%)
	Having partner	326 (38.7%)
	bereavement	458 (54.4%)
	divorcement	48 (5.7%)
Education level	Un education	274 (32.5%)
	Elementary	316 (37.5%)
	Middle school	100 (11.9%)
	High school	90 (10.7%)
	College	18 (2.1%)
	University	40 (4.8%)
	Master's higher	4 (.5%)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version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5$ 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국내 장애인인의 작업영역별 시간사용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국내 장애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영역별 시간사용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장애인인의 돌봄 필요 사유에 따른 작업영역별 시간사용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각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와 같다. 성별은 여성 558명(33.7%), 남성 284명(66.3%) 순이었으며, 돌봄필요사유로는 육체적 제약 328명(39%), 기타 돌봄

필요 272명(32.3%), 치매 118명(14%), 뇌졸중 76명 (9%), 시각청각언어장애 48명(5.7%) 순이었다. 혼인 상태는 사별 458명(54.4%), 배우자 있음 326명 (38.7%), 이혼 48명(5.7%), 미혼 10명(1.2%)순이었다. 교육 수준으로는 초등학교 316명(37.5%), 무학 274명 (32.5%), 중학교 100명(11.9%), 고등학교 90명 (10.7%), 대학교 40명(4.8%), 전문대학 18명(2.1%), 석사 이상 4명(5%) 순이었다.

3.2 국내 장애인인의 작업영역별 시간사용

국내 장애인인의 작업영역별 시간사용량의 평균을 분 단위로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다. 휴식과 수면 (637.71 ± 15.06)의 시간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여가(354.69 ± 174.89), 일상생활활동(199.95 ± 62.85), 수단적 일상생활활동(162.57 ± 140.07), 사회참여(61.48 ± 68.97), 일(13.76 ± 62.78), 놀이(9.73 ± 32.61), 교육(1.11 ± 3.1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Time use by Occupation domain of Korean disabled elderly (N=842, Unit: minute)

Occupation domain	M±SD
ADL	199.95±62.85
IADL	162.57±140.07
Rest and Sleep	637.71±15.06
Education	.11±3.10
Work	13.76±62.78
Play	9.73±32.61
Leisure	354.69±174.89
Social participation	61.48±68.97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3.3 국내 장애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영역 시간 사용

국내 장애노인의 일반적 특성(성별, 혼인상태, 교육 정도)에 따라 작업영역별 시간사용을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다. 성별에 따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F=-6.94, P<.001$), 여가($F=5.91, P<.001$), 사회참여($F=-4.83, P<.001$)의 시간사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혼인상태에 따라 일상생활활동($F=4.43, P<.01$), 수단적 일상생활활동($F=11.55, P<.001$), 놀이($F=2.89, P<.05$), 여가($F=7.12, P<.001$)의 시간사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정도에 따라 일상생활활동($F=2.71, P<.05$), 교육($F=8.01, P<.001$), 사회참여

($F=2.88, P<.01$)의 시간사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3 국내 장애노인의 돌봄 필요 사유에 따른 작업영역 시간사용

국내 장애노인의 돌봄이 필요한 사유(치매, 뇌졸중, 시각청각언어장애, 육체적 제약, 기타 돌봄 필요)에 따라 작업영역별 시간사용을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다. 돌봄 필요 사유에 따라서 일상생활활동($F=4.21, P<.01$), 수단적 일상생활활동($F=7.00, P<.001$), 휴식과 수면($F=4.42, P<.01$), 여가($F=5.08, P<.001$), 사회참여($F=3.7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돌봄 필요 사유별 일상생활활동의 시간 사용은 뇌졸중 집단이 시각청각언어장애와 육체적 제약 집단, 기타 돌봄 필요 집단보다 높았다(c,d,e(b)).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시간 사용은 시각청각언어장애와 기타 돌봄 필요 집단이 뇌졸중 집단보다 많았다(b<c,e). 휴식과 수면에 대한 시간사용은 치매 집단이 뇌졸중, 육체적 제약, 기타 돌봄 필요 집단보다 많았다(b,d,e(a)). 여가에 대한 시간사용은 뇌졸중 집단이 치매, 시각청각언어장애, 육체적 제약 집단보다 많았다(a,c,d(b)). 사회 참여에 대한 시간 사용은 뇌졸중 집단보다 시각청각언어장애, 육체적 제약, 기타 돌봄 필요 집단이 유의미하게 많았다(b<c,d,e).

Table 5. Time use by Occupation domai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disabled elderly (N=842, Unit: minute)

		Occupation domain							
		ADL	IADL	RS	E	Work	Play	L	Sp
Gender	Male	205.07	119.01	640.25	.00	18.59	6.44	403.66	46.97
	Female	197.35	184.73	636.42	.16	11.31	11.40	329.77	68.87
<i>t</i>		1.69	-6.94***	.35	-.71	1.38	-2.27	5.91***	-4.83***
Marital status	Single	157.00	295.00	630.00	.00	5.00	.00	292.00	61.00
	Having partner	207.85	133.40	635.40	.28	13.62	6.20	388.87	54.39
	bereavement	196.62	174.91	641.57	.00	13.95	12.66	333.45	66.83
	divorcement	187.08	215.21	618.13	.00	14.79	7.71	338.33	58.75
<i>F</i>		4.43**	11.55***	.44	.53	.07	2.89*	7.12***	2.10
Education level	Uneducation	193.28	160.91	649.60	.00	14.31	11.61	337.74	72.55
	Elementary	199.30	163.51	634.43	.00	17.22	9.53	355.85	60.16
	Middle school	213.20	163.00	648.20	.00	7.90	11.50	335.20	61.00
	High school	193.89	175.00	620.78	.00	14.56	5.11	389.44	41.22
	College	212.78	155.56	614.44	5.00	5.00	.00	392.22	55.00
	University	226.00	138.75	614.25	.00	.00	5.00	409.50	46.50
<i>F</i>		2.71*	.34	1.18	8.01***	.69	1.82	2.11	2.88**

* $P<.05$, ** $P<.01$, *** $P<.001$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RS: Rest and Sleep, E: Education, L: Leisure, Sp: Social participation

Table 6. Time use by Occupation domain according to Reasons for care of Korean disabled elderly (N=842, Unit: minute)

	Reasons for care					F	Duncan
	Dementia (a)	Stroke (b)	Visual Hearing Speech disorder(c)	Restrictions of physical (d)	Others (e)		
ADL	209.24	223.16	192.50	194.42	197.43	4.21**	c,d,e(b)
IADL	129.41	116.32	186.25	158.69	190.37	7.00***	b(c,e)
Rest and Sleep	687.03	631.18	653.75	628.87	625.96	4.42**	b,d,e(a)
Education	.76	.00	.00	.00	.00	1.54	
Work	11.53	.00	6.46	16.01	17.17	1.42	
Play	8.81	4.21	3.75	11.65	10.40	1.29	
Leisure	343.73	425.39	334.79	365.24	330.48	5.08***	a,c,d(b)
Social participation	49.49	39.74	62.50	65.12	68.20	3.70**	b(c,d,e)

P* < .05, *P* < .01, ****P* < .001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4. 고찰

국내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작업 치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치료에서 작업영역별 시간을 균형있게 사용하는 과정은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노인 작업치료의 대상자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시간사용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는 '2019 생활시간조사'의 시간 일지를 사용하여 행동분류를 작업영역에 따라 재분류한 후,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65세 국내 장애인인의 작업영역별 시간사용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장애인인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 필요 사유에 따라 작업영역의 평균 시간사용량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작업이란 개인이 해야하고, 원하고, 해야할 일을 포함하여 개인, 가족, 공동체와 시간을 보내는 의미있고 목적있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31]. 개인이 작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간사용, 습관 등의 수행 패턴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지지하거나 방해 할 수 있다[7]. 특히, 시간사용은 작업 균형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32,33].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시간사용은 삶의 질과 의미있는 작업참여를 향상시킨다[34]. 따라서 본 연구는 행동분류에 따라 작성되어진 2019 생활시간 조사의 시간 일지를 작업치료에서 사용하는 작업영역으로 활동들을 재분류하고 시간사용을 분석하였기에 국내 장애인인의 시간사용을 이해하고 중재를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작업 균형이 불균형하다면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작업치료의 중재 과정과 목표 설정에서 대상자들의 시간 사용을 파악해야한다[35].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장애인인은 다른 작업영역에 비해 휴식과 수면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뇌졸중노인과 치매노인의 시간사용을 조사한 결과, 휴식과 수면에 소비한 시간이 가장 많았다는 연구와 일치한다[24,25]. 장애인인들이 휴식과 수면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것은 개인에게 의미있는 특정 작업과 활동에 대한 시간사용이 적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휴식과 수면 다음으로 여가와 일상생활활동에 소요 되는 시간이 많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교육, 일, 놀이에 대한 시간 할당량이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인 정상 성인에 비해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시간사용 비중이 매우 많아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일에 보내는 시간이 적어져 시간사용의 효율성이 낮아졌다는 보고와 일치한다[21]. 국내 장애인인의 작업영역별 시간사용 분석을 통해 장애인인은 균형적인 작업의 기회와 요건이 충분하지 않기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작업영역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강재원 등(2017)은 작업치료사가 노인의 시간사용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과 관련하여 질환을 가진 노인과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간사용량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제안하였다[6].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인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혼인상태, 교육정도에 따라 시간 사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국내 장애인인의 성별에 따라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여가, 사회참여의 시간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혼인상태에서도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놀이, 여가의 시간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일상생활활동, 교육, 사회참여의 시간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통해 노인의 생활에 대해 이질성을 확인한 연구[20]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작업영역별 시간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대상자 맞춤형인 시간사용 증재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국내 장애인인의 돌봄필요사유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휴식과 수면, 여가, 사회 참여의 시간사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뇌졸중 노인의 경우, ADL과 정적 여가에 사용되는 시간이 다른 돌봄 사유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수록 일상생활활동과 정적인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36,37]. 뇌졸중 노인에게 시간 사용 증재인 라이프스타일 재설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휴식및수면 시간은 감소하였고, 동적 활동의 여가 시간이 증가함으로 의미있는 작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한다[25]. 치매 노인의 경우, 휴식과 수면에 사용되는 시간이 다른 돌봄 사유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김형민(2014) 등의 연구에서도 치매 노인의 경우 휴식 및 수면의 시간이 많은 부분 소비되고 있었으며, 작업치료사가 라이프스타일 재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휴식 및 수면의 시간 사용을 감소시켰고 IADL, 여가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24]. 이를 통해, 작업치료사는 장애인인의 사유에 따라 작업영역별 시간사용을 파악한 후, 개인의 목적있고 의미를 지닌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사용에 대해 균형있는 증재를 계획하고 제공해야함을 알 수 있다.

장애 노인에게 시간사용증재를 적용한 결과, 자아 존중감, 삶의 질,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38].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에게 시간사용증재를 적용한 결과, 우울이 감소하고 재활동기도 증가하였으며[26], 자기효능감과 작업 참여의 향상에도 효과가 있었다[27]. 척수손상 환자에서도 우울이 감소되었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34]. 작업치료사는 대상자의 비생산적인 시간에 의미있는 작업으로 채워주는 증재를 제공하기에 능동적인 작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파악하진 못하였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시간사용 증재를 제공하려면 작업영역별 시간 파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동시대에 살아가는 장애인인의 작업 시간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작업치료의 대상자인 장애인인의 작업 균형적 시간사용 증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하지만, 개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다양한 변수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시간사용에 대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 설정과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장애 노인인의 시간사용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5. 결론

개인의 의미있는 작업으로 이루어진 시간을 균형적으로 사용하도록 증재를 제공하는 것은 작업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2019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일지를 사용하여 행동분류를 작업치료 실행체계 (OTPF-4)의 작업영역에 따라 재분류한 후, 국내 장애인인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필요사유에 따라 작업영역별 시간사용량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내 장애인인은 휴식과 수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여가, 사회참여, 혼인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활동(ADL), IADL, 놀이, 여가, 교육 정도에 따라 ADL, 교육, 사회참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돌봄 필요 사유에 따라 ADL, IADL, 휴식과 수면, 여가, 사회참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인의 시간사용을 파악하는데 작업치료사에게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장애노인이 라이프스타일을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증재를 계획하고 제공하는데 활용될 것이라 기대되어진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0). *2020 Senior Statistics*.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2020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disabled*.
- [3] M. Y. Song.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n daily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by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1, 143-155.
- [4] H. T. Yang & W. W. Shin. (2011). The study on

-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2(52), 255-278.
DOI : 10.21194/kjgsw..52.201106.255
- [5] S. H. Kim & S. J. Ko. (200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by disability typ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 171-195.
- [6] J. W. Kang, J. H. Park & H. Y. Park. (2017). Analysis of time use in healthy elderly: A systematic review.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5(2), 87-102.
DOI : 10.14519/jksot.2017.25.2.06
- [7]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20).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et proces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4(Suppl. 2).
DOI : 10.5014/ajot.2020.74S2001
- [8]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14).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3rd ed.).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8, S1-S48.
DOI : 10.5014/ajot.2014.682006
- [9] C. H. Christiansen & K. M. Matuska. (2006). Lifestyle balance: A review of concepts and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Science*, 13(1), 49-61.
DOI : 10.1080/14427591.2006.9686570
- [10]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1994). Uniform terminology for occupational therap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8, 1047-1054.
DOI : 10.5014/ajot.48.11.1047
- [11] B. J. Jeon. (2011).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elderly's life time use and occupational bala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ungkyunkwan, Seoul.
- [12] A. R. Bak & S. K. Kim. (2020). Analysis and Satisfaction of Time Usage by Occupational Type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8(2), 69-82.
DOI : 10.14519/kjot.2020.28.2.06
- [13] D. R. Anaby, C. L. Backman & T. Jarus. (2010). Measuring occupational balance : A theoretical exploration of two approaches.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7(5), 280-288.
DOI : 10.2182/cjot.2010.77.5.4
- [14] C. Backman. (2004). Occupational balance : Exploring the relationships among daily occupations and their influence on wellbeing.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1(4), 202-209.
DOI : 10.1177/000841740407100404
- [15] Y. J. Kim, S. P. Hong & H. E. Park. (2017) Analysing Korean Occupational Time Changing Trend Based on Ages Using 2004, 2009, 2014 Time Use Survey.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5(3), 13-25
DOI : 10.14519/jksot.2017.25.3.02
- [16] J. Hinojosa & P. Kramer. (1997). Statement fundamental concepts of occupational therapy : Occupation, purposeful activity, and funct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1, 864-866.
DOI : 10.5014/ajot.51.10.864
- [17] Y. S. Yang, (2007). A Study on time use and roles of the older adults in aging socie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16, 1-26.
- [18] S. Park, H. Han, Y. Jung & H. Woo. (2020). Occupational therapists'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10(3), 15-26.
DOI : 10.18598/kcbot.2020.10.3.02
- [19] Y. A. Yang, B. R. Park & S. M. Cha. (2010). The future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ing society. *Hanyang University Journal of Aging Society*, 1(1), 57-74.
- [20] J. W. Kim. (2006). A study on the time of the elderly in Korea: Analysis their use of time upon work, family and leisur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2, 149-177.
- [21] Y. G. Kim. (2005). The analysis study of life-style for efficient occup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3(2), 51-61.
- [22] J. H. Lee, S. H. Park, E. Y. Yoo, M. Y. Jung & D. Y. Cho. (2012). Characteristics of Time Use and Types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Non-Disabled Urban Elderly.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0(2), 85-98.
DOI : 10.14519/kjot.2020.28.2.06
- [23] H. Park, B. Jeon, J. Lee & S. Kim. (2014). Local community and nursing-home of the resident elderly in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time use for occupational balanc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4(2), 41-51.
- [24] H. Kim, J. Lee & B. Jeon. (2014). The effect of

the lifestyle redesign program on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ies with dementia.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2(1), 1-14.
DOI : 10.14519/jksot.2014.22.1.01

[25] H. Kim & B. Jeon. (2019). The effects of lifestyle redesign program on time usage and quality of life for elderly with strok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9(3), 21-30.
DOI : 10.18598/kcbot.2019.9.3.03

[26] S. J. Park & S. I. Song. (2015). The effects of time-use intervention on depression and rehabilitation motivation for stroke pati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3, 25-37.
DOI : 10.14519/jksot.2015.23.3.03

[27] H. R. Sim. (2017). *Effects of time-use intervention on self-efficacy and the six factors influencing occupational participation for stroke survivor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

[28] Statistics Korea. (2019). *2019 Time Use Survey*.

[29] S. P. Hong & J. Y. Lee. (2010). Time use of areas of occupation according to the periods of life in Korea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8(1), 95-106.

[30] Statistics Korea. (2019). *2019 Time Use Survey Guidelines*

[31]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2). *About occupational therapy*.

[32] Eklund et al. (2017). The linkage between patterns of daily occupations and occupational balance: Applications within occupational science and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4, 41-56.
DOI : 10.1080/11038128.2016.1224271

[33] P. Wagman, C. Hakansson & H. Jonsson. (2015). Occupational balance: A scoping review of current research and identified knowledge gaps. *Journal of Occupational Science*, 22, 160-169.
DOI : 10.1080/14427591.2014.986512

[34] J. Kim. (2014). The effect on efficient time-use intervention 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spinal cord injury: A case study. *Korean society of cognitive rehabilitation*, 3, 59-74.

[35] M. M. Balters, H. W. Wahl & Schmid-Furstoss, U. (1990). The daily life of elderly Germans: Activity patterns, personal control, and functional health. *Journal of Gerontology*, 45(4),

173-179.
DOI : 10.1093/geronj/45.4.p173

[36] S. P. Hong, M. N. Jang & E. K. Seo. (2008). Time use among people with tetraplegia participating in wheelchair rug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9(2), 1-12.

[37] A. Bak & T. Cha. (2020). Occupational balance and time us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8(1), 44-55.
DOI : 10.18064/JKASI.2020.18.1.44

[38] Y. G. Kim. (2010). The effect on Time-use intervention for the elder with disability.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Korea*, 14(4), 205-224.

홍 서 진(Seojin Hong)

[학생회원]



- 2021년 2월 :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보건학사)
- 2021년 2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작업치료, 노인, 지역사회
- E-Mail : hsj122459@naver.com

차 태 현(Tae-Hyun Cha)

[정회원]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학사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이학석사
- 2014년 2월 :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심리운동, 삶의 질, 신경과학
- E-Mail : taehyun@konyang.ac.kr

유 영 빈(Young-Bin Yu)

[정회원]



- 2000년 2월 : 인제대학교 임상병리학과(학사)
- 2002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임상병리(석사)
- 2010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임상병리(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 노화, 에이징(Aging)
- E-Mail : ybyoo@konyang.ac.kr